

수해특별재해지역 지정선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견

의 안 변 호	3 - 13
------------	--------

발의년월일 : 1998년 8월

발 의 자 : 형남선 의원외 6인

1. 주 문

- 동두천시는 미제2사단의 대규모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수많은 미군장병이 주둔하고 있어 기지촌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분단 반세기동안 안보논리에 밀려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한수이북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음.
- 지난 8월 5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총643mm의 집중호우로 10명의 인명이 사망하는등 동두천이 생긴이래 최악의 재난을 당하였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오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여 재원조달이 없는 동두천시를 보상차원에서 우리시와 피해를 입은 인근 시.군을 함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수해지역 수재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금번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보상에 최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
- 군사요충지라는 안보논리에 밀려 낙후된 동두천시를 보상차원에서 경원선 복선전철사업비 전액 국고부담, 광암동 확장공사, 동광교 가설공사에 국고 지원 촉구
- 상습 침수지역인 생연동, 보산동지역이 특수관광특구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 촉구
- 인천변에 위치한 미군측 수송부대(캠프 님블)의 조속한 이전 촉구

건의문

우리 동두천시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38선을 지척에 두고 휴전선과 인접하며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안전 요충 도시로 6.25동란이후 우리시가 안보상 최적의 군사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여건으로 조상 전래의 문전옥답에 미제2사단의 대규모 군사시설이 설치되고 수많은 장병들이 주둔하면서 기지촌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분단 반세기동안 남북이 대치된 특수상황이라는 안보논리에 밀려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부담해야할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난제들의 피해를 우리 8만여 시민들이 지금까지 떠맡아오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75%에 해당되는 토지들이 미군공여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군사훈련 및 작전에 징발되므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한수이북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조국통일의 염원과 정부의 과감한 북부지역 개발을 기대하며 경원선 복선 전철연장사업,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강변우회도로 개설, 40만평의 생연지구 택지개발, 경기의 소금강인 소요산 국민관광지· 탐동계곡 유원지 개발, 동서를 연결하는 광암로 확장공사, 미제2사단 주변 관광특구개발등 수많은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꾸고자 21세기로 도약하는 새 동두천 건설을 위해 전시민이 하나되어 화합과 단결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8월 5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총 643mm의 사상 유래없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내중심부를 지나는 신천이 범람하여 생연동, 보산동을 비롯한 10개동 전역이 가옥의 파손 및 침수, 농경지유실, 산사태발생, 도로 및 교량유실 등 재산상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으며 아깝게도 10명의 귀중한 인명이 사망하는등 동두천이 생긴이래 최악의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번의 수해는 불가항력적인 게릴라성 호우로 피해가 크지만 미제2사단의 군사시설로 인한 더욱 많은 피해로 우리 동두천시 전역을 폐허로 만들어 놓았으며 시민들의 생활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해복구에는 행정당국의 능동적 대처와 수재민의 강인한 재기의욕, 각종 사회단체의 헌신적인 자원봉사, 전국 각지의 구호품 전달등 따뜻한 온정이 답지하고 있으며, 밤낮없이 국토방위 임무 수행중인 군부대의 현역군인들의 헌신적인 인력과 장비지원, 소방서, 경찰서 등의 적극적인 구조활동과 인력지원등으로 응급복구는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나

이번 폭우로 고립되어 생명에 위협을 받았던 광암동 산악지역의 주민고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서를 연결하는 광암로 확장공사, 상습침수요인을 제공하는 신천의 동광교 재가설공사 등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바 항구복구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오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여 재원조달 능력이 없는 동두천시를 위하여 보상차원에서 우리시와 피해를 입은 인근시군을 함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선포하여 아픔과 고통을 겪고있는 이재민 구호, 파손된 주택복구, 피해시설물의 복구, 기계와 제품이 침수되어 가동이 중단된 중소기업체 등에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국가적 각종지원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면서 우리 동두천시의회 의원일동은 긴급소집된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중앙정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수해지역 수재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금번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보상에 최대한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군사요충지라는 안보논리에 밀려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을 받아 여타지역보다 낙후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부에서는 금번 수해지역의 수재민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전시민의 오랜숙원사업인 경원선 복선 전철연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조속히 완공하여 줄 것과 동서를 연결하는 광암로 확장공사, 신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동광교 가설 공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아울러 신천이 범람하는 상습 침수지역인 생연동, 보산동 지역의 관광특구는 온천, 사적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지정된 다른지역 관광특구와 성격이 다른 미제2사단과 연계되어 예외로 지정된 특수한 관광특구인 만큼 근본적인 재해대책을 강구하여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가등 시가지를 정비하여 특수관광특구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신천하천 정비사업시 사업계획에 편입된 미군측 수송부대(넴블)의 시설물 이전협상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우이독경식으로 협상에 불응하여 공사가 중단 변경되므로써 하천이 범람하고 자체군사장비가 유실되는 과정에서 교량에 충격을 가하여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고 유속을 감소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으므로 한.미 양국정부는 성의있는 협상으로 군사시설물을 조속히 이전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5. 동두천시의회는 금번 수해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빠진 수해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8. 8. 14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